

일본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과 과제

일본경제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서 가격인하와 고용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스스로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판로개척뿐 아니라 정부의 인재중개 지원, 하청거래의 적정화 추진 등의 과제 해결이 중요

- 일본경제가 당면한 디플레 심화와 고용상황 악화는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전산업 기준으로 68%의 중소기업에서 작년 대비 주력제품의 가격을 인하
 - 전산업 기준 35%의 기업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가격인하. 특히 소매업에서는 10% 이상 가격을 인하한 기업이 55%로 절반을 초과
 - 가격하락 이유: ‘경쟁업체를 비롯한 국내 전반적인 가격인하’ (45%), ‘고객과 발주업체의 요청’ (30%), ‘재료구입 등 원가변동 반영’ (14%) 등
 - 전산업 기준 30%의 중소기업이 작년 대비 종업원 수를 축소.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중소기업에서는 각각 39%, 31%가 감축

1)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2009년 11월 하순 ~ 12월 초순에 「중소기업의 제품가격과 고용 동향에 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010.2.17)

- 조사대상: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 산하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 표본 수: 각 업종 100개사, 합계 500개사

- 향후 고용계획은 전산업 기준 75%의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유지. 도매업에서는 종업원 수를 줄이려는 기업이 28%를 차지
- 고용유지 대응책: 경비 절감(69%), 임원보수 삭감(44%), 노동시간·잔업 단축(28%), 임금·수당 삭감(21%) 등으로, 임금 이외의 수단을 우선시

□ 일본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

- 실질GDP성장률은 2008년도에 전후 최악 수준인 $\triangle 3.7\%$ (전년도 대비)를 기록, 2009년도에도 $\triangle 2.6\%$ 정도의 침체국면이 지속될 전망(내각부, 2010.1.22)
- 실업률 역시 2009년 2/4분기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인 5%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가 2009년 연간 $\triangle 1.6\%$ 로 추정되는 등 물가하락이 지속

※ 2009년 11월 일본은행은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직면을 공식 선언

□ 일본경제의 침체 국면 하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 및 도산 지속

- 일본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8년 4/4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대폭적인 감소로 전환된 이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08년 4/4분기 $\triangle 23.0\%$, '09년 1/4~3/4분기 각각 $\triangle 47.6\%$, $\triangle 39.5\%$, $\triangle 34.0\%$)
- 일본 중소기업의 도산은 2009년 4/4분기 3,529건을 기록('09년 1/4분기 4,215건으로 최대, '09년 3/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둔화세로 전환)

- 유례 없는 국내외 수요감소 하에서 일본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특히 제품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IT활용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과 같은 중소기업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할 의욕을 갖춘 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인재중개 지원, 하청거래의 적정화 추진 등 정부대응도 중요

<참고자료>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2010.2.17), 「中小機構調査レポート」 No.2 2009年12月発行.

中小企業庁(2010.1.25), 「倒産の状況」, 「規模別輸出額・輸入額」.

内閣部(2010.1.22), 「平成22年度の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中小企業庁, 『中小企業白書2009年版』.